

이운순 학형의 부음에 접하여,

같은 정신과 의사로 똑같이 만하탄과 시외 오피스를 가지고, 환자를 돌보던 때가 어제 같은데, 이세상을 하직했다는 소식을 접하여 고인의 명복을 빌며 가족들의 슬픔에 심심한 조의를 표합니다.

이운순 형과 나는 의대 시절부터 가까이 지내던 사이였는데 이유는 이운순 학형의 형님이고 우리의 은사인 이진순 교수가 나의 외삼촌인 안창성 선생과 성대 동기동창으로 1943년에 졸업으로 주근원 교수랑 동창이므로 서로 가까웠던 것이다.

도미 후 우리가 살던 뉴욕 서북쪽 록크랜드 카운티에 있는 부라우벨트에 와서 이웃으로 근 10년 가까이 살다가 거의 동시에 좀더 상류 동네로 이사갔으나 멀지 않은 이웃으로 계속 지내왔습니다.

고인 생전에 어려운 환자가 있으면 의논하고 서로 환자를 의뢰하던 기억이 새롭네요. 무엇보다도 우리가 함께 1남 2녀의 자식들을 두고, 나이 차이가 있으나 어린시절에는 서로 같이 놀던 기억도 새롭습니다. 언제나 자녀들의 안부와 동정을 묻던 기억도 간절합니다. 그렇게 즐기던 정구 골프도 한 두번 같이 해 본 기억도 납니다.

이제 판데믹이 덥친 때에 이렇게 코로나 바이러스로 학형을 보내니 마지막 고별 장례도 같이 못함을 진심으로 애석하게 느낍니다. 가족 여러분에게 위로의 말씀을 보내면서

애도 함과 추도의 말씀을 보냅니다.

삼가 김해암